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

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7. 12. 3. (일)	담당부서	원전수출진흥과 구주통상과
담당과장	김 진 과장(044-203-5330) 심진수 과장(044-203-5660)	담 당 자	이수홍 사무관(044-203-5333) 한해원 사무관(044-203-5664)

산업부장관, 외국각료 최초로 체코 신정부 총리 내정자와 신규원전사업 협의

- 양국 원전산업 기업 · 기관간 기자재-정보-인력-방폐물관리 원전산업 전방위적 협력 MOU 4건 체결

□ **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은 '17. 12. 1.(금) 외국 각료로는 최초로 안드레이 **바비쉬**(Andrej Babiš) **차기 총리 내정자***를 만나 **양국간 원전 분야를 포함한 경제·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.**

* 11월 총선에서 체코 제1당이 된 ANO당의 대표인 바비쉬는 차기 총리 선출이 유력

□ 이 자리에서 백 장관은 한국의 **체코 신규 원전사업*** **참여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, 한국과 체코의 기업이 함께 협력**한다면 **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**이라 밝혔다.

* 체코는 국가에너지계획에 따라 '40년까지 두코바니 및 테믈린 지역에 각 1~2기의 원전을 건설할 예정으로, 두코바니 1기는 '35년까지 건설 목표

○ 또한, **한국 원전은** ① 40여년 간 국내와 아랍에미리트(UAE) 바라카 원전에서 축적한 **풍부한 건설·운영 경험과 전단계에 걸친 견고한 공급망**, ② **정해진 기한·예산내 사업관리 능력**, ③ 유럽사업자요건(EUR) 인증 취득('17.11월)으로 입증된 **높은 안전성 및 기술력 등**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어 체코 신규원전 사업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.

□ **바비쉬 총리 후보자는** 부총리 겸 재무장관 재임 시절 **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경제성 등을 검토**했었다고 밝히며, 한국이 시공 중인 아랍에미리트(UAE) **바라카 원전 사업의 적기 시공** 등을 통해 **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.**

○ **한국과 원전사업을 함께 한다면 양국 관계도 더욱 강화**될 것인 바, 신정부의 **원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를 충분히 검토**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.

□ 특히, 동 면담에는 **차기 산업통상부 장관으로 내정된 토마시 히네르(Tomáš Hüner)가 동석**하였으며, **백 장관은 산업부장관 내정자에게**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직접 보고 느끼길 바란다며 **초청 의사를 밝혔다.**

□ 또한, 백 장관은 같은 날 **이리 하블리첵(Jiří Havlíček)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**을 만나 **신규원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.**

○ 하블리첵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신규 원전사업 준비가 사실상 완료되어 **신정부가 출범하면 본격 추진 될 것**으로 전망했다.

○ 한국이 **원전 공급망(Value Chain) 전반에 걸쳐 체코와 협력 관계**를 구축하고 있어 향후 원전 **공급사 선정에서 우위를 확보**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.

○ 양국 장관간 면담 직후 **양국 기업과 기관은** ❶부품·기자재 공급, ❷원전 산업 정보 교류, ❸ 원전 전문인력 교류, ❹ 방폐물관리 **4개 분야의 원전 산업 협력 양해각서(MOU)*를 체결**하고 **원전사업의 다각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.**

* ❶ (한)한수원-(체)두산스코다파워, ❷ (한)원자력산업회의-(체)체코전력산업계연합, ❸ (한)원전수출산업협회-(체)원전인력협회, ❹(한)원자력환경공단-(체)방폐물관리공단 (※❹번 MOU는 체코 현지 사정상 별도 장소에서 협약 체결)

□ 이외에도, **백 장관은** ‘17. 11. 30.(목)~12. 1.(금) 다나 드라보바 체코 원자력위원회 위원장, 밀루쉐 호르슈카 상원부의장, 얀 피셰르 전 총리 등 **정관계 고위 인사를 만나 양국간 원전 분야를 포함한 경제·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.**

□ 백 장관은 11.30일 프라하 현지에서 주최한 『한국 원전의 밤(Korean Nuclear Night)』 행사에 참석하여 **체코 원전 관련 유력인사와 기업관계자 등을 대상**으로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등 우리 기업의 **체코 신규원전 수주를 위한 지원 활동**과 함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
□ 이번 백 장관의 체코 방문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, “**체코 신규 원전 사업이 신정부 출범으로 본격 추진**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체코 총선 후 **외국 각료로는 처음으로 총리 내정자와 면담**을 갖는 등 체코 주요 인사와 최고위급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**경쟁국보다 선제적인 원전 수주 활동을 추진** 한 것이다.”라고 말했다.

○ “이번 양국 기업·기관간 양해각서(MOU) 체결로 **원전산업 어러방면에 걸쳐 견고한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**함에 따라 향후 **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**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.”라고 말했다.

※ 첨부: 체코 총리 내정자 등 관계자 면담 사진과 설명

차기 총리 내정자(바비쉬 ANO당 대표) 및 산업통사자원부 장관 내정자 면담

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7. 12. 1(금,현지시간) 08:00 체코 프라하 ANO당사 회의실에서 외국 각료급에서는 최초로 차기 총리 내정자인 안드레이 바비쉬 ANO당 대표 및 토마시 히네르 산업통상부 장관 내정자와 면담을 갖고, 한국의 체코 신규 원전사업 참여 의지를 표명하고, 원전 분야를 포함한 양국간 경제·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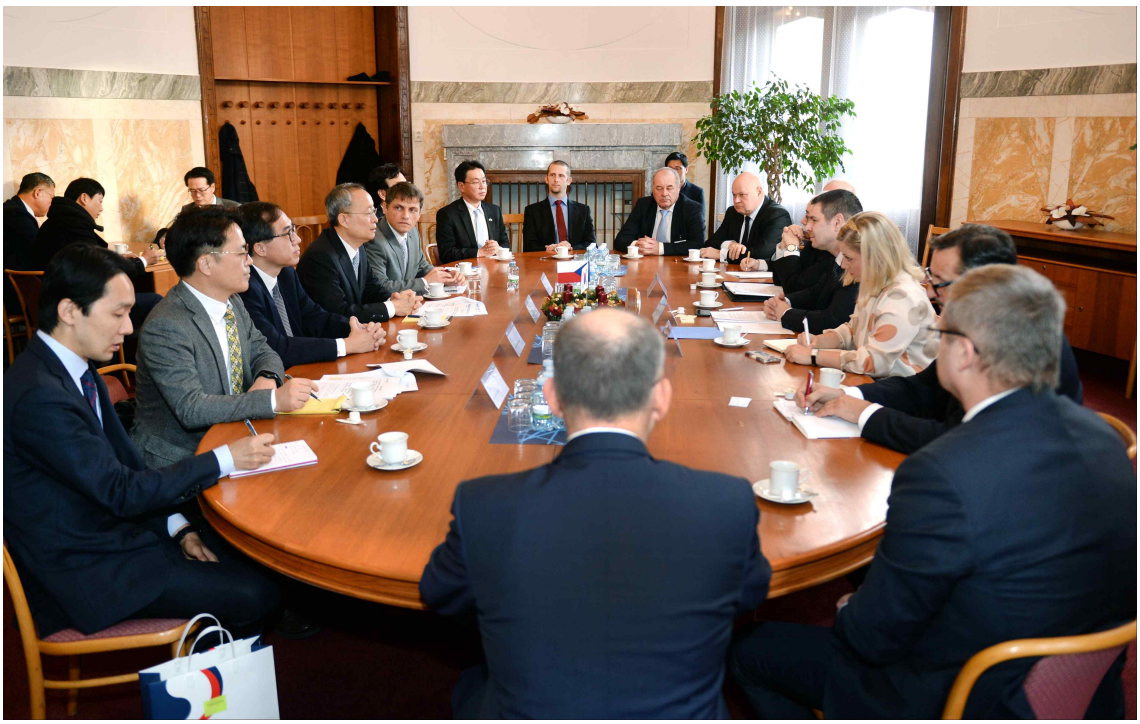


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면담

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7. 12. 1(금,현지시간) 09:40 체코 프라하 산업통상부 회의실에서 이리 하블리첵(Jiri Havlicek) 現산업통상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, 한수원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프로젝트 참여 방안과 원전 분야를 포함한 양국간 경제·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후 한국 한수원-체코 스코다파워와의 기자재 공급 협력 MOU와 한국 원자력산업회의-체코 전력산업계연합, 한국 원전수출산업협회-체코 원전인력협회의 원전산업 협력 MOU에 임석하였다.





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 심진수 과장(044-203-5660), 한해원 사무관(044-203-5664), 원전수출진흥과 김진 과장(044-203-5330), 이수홍 사무관(044-203-533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